

기독교대학의 신학적 기초

The Theological Foundations
of Christian Colleges

이근삼

I. 有神論 信仰

1.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2. 창조
3. 문화적 사명
4. 神意識과 양심
5. 인간의 타락
6. 구속적 특별 계시

II. 信行一致

1. 신앙과 행위
2. 종말론적 문화적 사명
3. 기독교 공동체
4.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공동체

* 본고는 1991년 8월 통합연구학회 학술발표회 때 발표한 논문이다.



이근삼

1923년 부산 출생으로 고려신학교(1946 ~ 1951), 미국 Golden College(B.A, 1954 ~ 1957),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B.D, Th. M. 1955 ~ 1957),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1957 ~ 1958)를 거쳐 화란 자유대학(Free University; 1958 ~ 1967)에서 신학박사 학위(Th.D)를 취득하였다.

1962년 이래 고신대학 교수 및 대학원장, 학장을 역임하고 현재에도 학장에 재직하고 있다. 이론신학 전공으로 「The Christian Confrontation with Sinto Vationalism」(1966), 「칼빈, 칼빈주의」(1972), 「기독교 윤리와 십계명」(1979),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1985), 「개혁주의 신앙과 문화」(1991) 등 많은 저서가 있다.

Abstract

Christian university is the community of science on the one hand and the community of faith on the other hand. She is the human religious and educational response to the creational mandate given by our God and had a task to realize Christian worldview and thought in educational and cultural sphere.

Therefore Christian university must be established on the biblical-theological basi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aith of theism and the correspondence of faith with action as foundations of the Christian university.

First Faith of theism : Christian faith is the belief on self-existent and personal God revealed in the Scriptures, and Christian life is the personal response of human being to God's works. Under the faith of theism we can mention believes on God's Absolute Sovereignty, Creation, Cultural Mandate, Sense of Deity or Conscience, the Fall of Mankind, and Redemptive Special Revelation.

Second Correspondence of faith with action : We should recognize the absolute sovereignty of Jesus Christ on all spheres of human life and glorify our God not only in service but also in all aspects of our lives. Christian believers and their earthly lives lies in the tensions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between 'already' and 'not yet'. But, we should lead our lives in eschatological perspective.

The Education of the Christianity is and must be a project of the Christian community and is charged with a mission to bring up people of God in the secular society.

대학은 학문의 공동체이다. 12세기에 대학의 기원을 이룬 유럽대학에서 신학이 학문의 중심이 되어 신학은 소위 학문의 여왕(the queen of science)으로 다른 학문들은 신학의 시녀(ancilla theologiae)라 불리웠다. 이 때 대학을 세우고 거기에 종사한 이들은 학문을 신성시하여 학문적 자유의 기틀을 잡았고 대학 자율화의 기초를 세웠다. 교수는 연구하고 가르치며, 학생은 교육받을 준비를 하므로 학문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고 학교 행정기는 교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반 뒷바라지를 했다.

기독교대학은 한편으로 대학으로서 하나의 공동체이고, 다른 한편으로 신앙공동체이다. 그것은 친교클럽이나 봉사기관도, 또한 직업훈련원도 아니라 교육하며 학문활동을 하는 공동체이다. 또한 그것은 단순한 지역교회와는 아니지만 하나의 신앙공동체이다. 기독교대학은 이렇게 양면적 공동체성(共同體性)을 갖는다. 이 양면성 위에 우리는 이 대학에서 신앙과 학문이 분리되지 않고, 되지 않아야 함을 본다. 여기서는 신앙과 신앙의 원리가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초가 되며 또한 그 의미 부여를 함에서 그 양자가 합일되는 것이다.

대학 역사를 살펴볼 때 유럽과 북미 같은 지역에서 기독교 이념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일찍이 영국 Oxford대학은 1168년에 세워지면서 “주는 나의 빛(Dominus illuminatio mea)”(시 27:1)을 교육지표로 삼았고, 칼빈은 스위스 Geneva에 Calvin Academy(1559)를 건립하면서 “경건과 학문의 도장”을 세우게 됨을 감사했다. 미국의 Havard대학은 1636년에 설립되면서 “진리(Veritas)”를, Yale대학은 1701년에 “빛과 진리(Lux et Veritas)”를, Columbia대학은 “주의 광명 안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In tuo lumen videbimus lumen)”(시 36:9)를 각각 그 교육지표로 삼았다. South Africa의 개혁주의 기독교대학인 Potchefstroom대학도 Columbia대학의 표어와 꼭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독교적 사상 위에 세워진 대학들의 교육이념과 지표가 명시하듯이 기독교대학은 그 학문연구와 교육이 성경적 조망에서 심사

숙고하여 탐구되어야 하고 기독교 신앙 그 자체가 교육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대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조명령에 대한 신앙적이고도 교육적인 반응으로서 기독교 정신을 인간의 정신세계와 문화세계에 구체화하는 사명을 가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대학의 본질과 사명을 규정짓고 그 모든 활동의 이념적 근간이 되는 신학적 기초를 논의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 필자는 기독교대학의 신학적 기초를 유신론 신앙과 신행일치라는 두 가지 점에서 논의해 보겠다.

I. 有神論 信仰(Faith of Theism)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신 自存者,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 응답(response)이다. 하나님의 행위는 곧 계시(revelation)인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하심과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창조적 구조를 통해서 하시는 자연계시(natural revelation)와 구속사적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별계시(special revelation)로 구분된다.

1.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God's Absolute Sovereignty)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주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입법자이시며 자연계와 도덕계의 만유에 대해서 절대적 통치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연계 뿐만 아니고 진리, 사상, 도덕, 과학에 있어서 법칙과 질서를 가지고 통치하신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일들은

- ① 주권자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엄격히 구별된다(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Creator God and Creature)

- ② 종교는 하나님과 그의 형상인 인간 간의 언약관계이다.
 - ③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의 비참
 - ④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
 - ⑤ 성령의 인도와 구원 완성
-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창조(Creation)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계획에 따라 무에서 유(creatio ex nihilo)로 창조하셨다. 6일 동안에 모든 창조를 하시되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물과 공기, 짐승과 새, 고기와 생물, 식물과 광물 등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그런데 창조의 면류관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 모든 창조는 그 부분이나 전체가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며 관리의 대리자인 우리 인간에게도 창조는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된 것이다. 창조된 자연의 모든 영역과 인간의 역사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主)가 되시며 세계의 존재와 질서, 발전하는 구조와 모든 가능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창조물에 대한 바른 설명과 의미부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서 인간은 담대하면서도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접근하여 그 신비를 탐구하고 잠재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야 할 문화적 명령에 순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고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또한 기독교대학의 임무이다.

3 문화적 사명(Cultural Mandate)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에 자연법칙의 질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라”는 문화 건설의 명령을 주셨으므로 이 명령은 곧 창조구조에 속한다. 죄는 사람이 피조물을 즐길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에 일어난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게 마땅히 두어야 할 의미와 가치를 그만큼 두지 않는데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왜곡하거나 악용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문화적 명령에 따라 발전하고 기쁘고 활용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다. 이 사명은 인간의 범죄로 인한 타락 이전에 맺어진 일반은총에 속한 것이다.

4 신의식(神意識)과 양심(Sense of Dely & Conscience)

Calvin은 자기의 주저(主著)인 「기독교강요」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 는 자연적 직관으로 신에 대한 각성이 있다”고 했다(Institutes I, 3: 1). 그는 이것을 신의식(sensus divinitatis)이라 하고 그 본질은 창조주에 대한 의존심과 그의 영광과 위엄에 대한 경외심으로 규정했다. 이 신의식을 학자들은 ‘종교의 씨(semen religionis)’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으로서 종교의 보편적 현상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칼빈은 양심(conscientia)을 계시의 주관적 양태로 보고 신의식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양심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생래적(生來的)으로 주어진 일종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그 객체로 한다. 이 양심의 지식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선악간의 구별,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 자연의 법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양심으로 인간은 도덕적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의 책임을 깨닫게 된다. 칼빈은 “이 내면적 법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십계명에서 배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Institutes II, 7: 1). 십계명의 강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마 22:34ff).

이 신의식은 외부적 세계와 역사의 형식에서 보충될 수 있다. 하나님

은 위에서 말한 종교의 씨를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하나님 자신을 날마다 매순간마다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계신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보도록 강요당하지 않고서는 눈을 뜰 수 없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Ibid, I, 5:1). 그러므로 그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영광과 지혜와 공의를 보여주시는 큰 책이며, 거울이고 극장이라고 종종 말하고 있다. 바울은 롬 1:18, 20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하였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범죄·타락 이전의 상태에서의 신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다음은 타락 이후의 상태를 알아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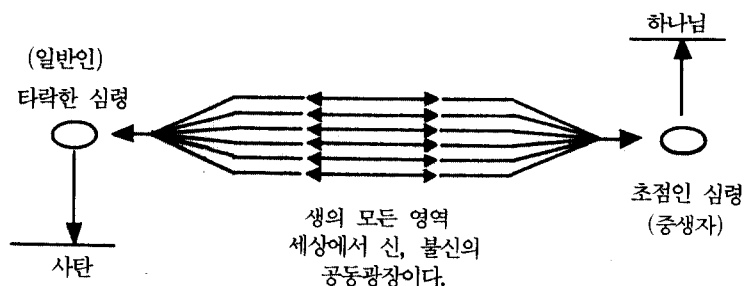
5 인간의 타락(The Fall of Mankind)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므로써 전인격적 변화, 즉 전적 부패(total depravity)에 빠졌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낮을 피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보여주며, 부끄러움 때문에 나무잎으로 하체를 가리움으로써 양심의 훼손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부부관계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또 피조물과의 관계도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되었고 또 자연계는 가시와 엉덩퀴를 내면서 땅은 비정상적인 질서를 산출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되었다(롬 8:21)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창조구조의 실체와 본성이 변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덕적 내지 종교적 변화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본래의 사랑과 순종이 없어지고 오히려 마귀 사단에게로 향하여 그 앞에 굴복한 것이다. 마귀의 유혹으로 자기 사랑에 빠지고 탐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충동으로 교만하여지고 하나님 경배와 순종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인간 실존의 참된 질서에서

이탈되고 동료 인간에서 멀어지고 실재에의 이해가 어두워졌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뜻을 따르는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적 구조 속에 있는 인간의 본질을 다 상실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지혜도 있고 교제도 하고 건설도 하고 과학적 발전도 할 수 있다. 즉 문화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임무를 잘못된 방향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 인격의 초점인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타락한 자는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의 활동의 중심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반신적(反神的) 방향 즉 마귀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이끌고 간다.

6 구속적 특별계시(Redemptive Special Revelation)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두번째 기본적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성경에 특별계시로 기록되어 있다. 이 역사는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신약에 계시된 대로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교훈, 죽음, 부활과 승천을 일련의 구속사건으로 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된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구속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다.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에서의 구원이 있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정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길이다. 이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에는 객관적 규범과 주관적 수용이 있다. 객관적 규범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데 그것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특별계시인 성경이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생활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Westminster 교리문답은 가르친다.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대하거나 영접할 수 없으므로 인간의 말로 기록된 성경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계시이다. 이 계시는 성령의 조명과 내적 증거 없이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신앙의 주관적 수용, 즉 믿는 자 속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지적 요소 곧 지식이다. 신앙은 믿는 내용이 확실해야 한다.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구속하는 일련의 사건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광신이나 미신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 둘째는 정적 요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에 확신을 가지고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는 의지적 요소로 구주에게 나의 생명 전체를 완전히 의탁(trust or commit)하는 것을 말한다.

신앙에 있어서 칼빈은 이 셋째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 위탁으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그의 명령대로 절대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구원받은 신자로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 기독교대학은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로서 문화적 사명에 공동으로 헌신하여 모든 학문분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신앙과 학문의 열정이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바쳐질 때 이것이 곧 성령충만의 징표일 것이다. 요약하면 기독교 신앙은 성경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II. 信行一致(Faith and Action)

1. 신앙과 행위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믿음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 믿음은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관계되고 또 관계되어야 한다. 즉 찬송을 부를 때와 마당에 비질을 할 때, 기도를 드릴 때와 수확공부를 할 때, 정원 손질을 할 때와 철학공부를 할 때,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일에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특별하고 구별된 종교적 행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생 전부와 생활 전면에 있어서 행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곧 종교”(Life is Religion)라는 말이 적합하다.

Abraham Kuyper는 Princeton대학에서 강의한 칼빈주의 특강(Calvinism Princeton Stone Lectures)에서 참 종교를 알아보는 네 가지 시금석을 말할 때

- ① 그 종교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있는가?
- ② 그 종교가 전체적인가, 아니면 부분적인가?
- ③ 그 종교가 직접적인가, 아니면 간접적인가?
- ④ 그 종교가 비정상적 인간을 구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정상적으로 보고 더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를 제시하였다. ②의 답에 참종교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거나 벗어날 수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은 신전(神前, coran Deo)에서 인격적 책임성을 지니고 사는 신앙의 삶이라야 할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바른 신자는 모든 문화적 활동을 무시하거나 어떤 종교적 특수 영역 속으로 후퇴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모든 활동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열심으로 동참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행위를 실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구체적 사건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도는 문화적 활동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회적·정치적 활동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며 문학과 예술에 무관심하거나 역사 밖으로 축출되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가 분명하고 참되게 그리고 의미있게 되도록 우리의 도덕적·종교적 선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종말론적 문화적 사명(Eschatological Cultural Mandate)

사람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신앙할 때 그는 창조구조 속에 임한 하나님의 자아계시(Self-revelation of God in the structure of Creation)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때에 그는 사람의 본성과 자연의 구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숨씨를 보게 되며 또한 교만과 자기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자기 모습을 알게 된다.

칼빈이 말한 대로 희미하고 비뚤어진 시력이 안경의 도움으로 분명하게 보게 될 수 있듯이 성경도 우리의 마음에 혼돈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참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한다(Institutes I, 4:1).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육적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already) 우리들에게 임하였다. 즉 미래적 종말의 요소가 “이미” 들어왔다. 동시에 “아직”(not yet) 궁극적으로 실현되

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 이와 같이 신자들 안에는 현재와 미래, “이미”와 “아직 아니”가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종말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다. 그 종말은 곧 영원, 즉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하는 신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것을 성경에는 크로노스(Χρόνος)와 구별되게 카이로스(καιρος)로 말하고 있다. 크로노스는 계속되는 연대적 시간을 말하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구속에 관계하여 도구로 사용하시는 시간으로서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고 또 미래가 될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 이 카이로스라는 구속적 시간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미래 또는 영원한 현재를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육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다. 그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에 연결된 현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화적 건설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대적인 옛사람으로서의 최악의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종말론적 문화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인 현재에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 지향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화적 사명 수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8)

기독교대학에서 연구, 교수, 봉사를 위한 기독교 교육은 신자로 먼저 이런 신앙과 생활에 확고히 서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이런 참된 의미있는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기독교대학의 교육목적은 기독교인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학생을 교육하는데 있다. 학생들에게 문화적인 것을 떠나서 종교적인 것을 교육한다거나 종교적인 것을 떠나 문화적

인 것을 교육한다는 것이 아니다. 문화적 명령수행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므로 문화적 활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의 일치, 즉 종교와 문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통합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생활임을 분명하게 교육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성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좌에 계셔야 하고 우리는 삶의 전체에서 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휴식오락(recreation)이건 장사(commerce)이건, 또는 정치(politics)이건, 문예(art & literature)이건 모든 것이 다 신앙의 범주 안에 들어와야 한다. 학교에서도 휴식과 오락, 상업, 정치, 예술 등 모든 삶의 분야에 성경 계시의 적용을 따라야 한다. 기독교 문화의 발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전 10:31) 하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기독교 공동체(The Christian Community)

위에서 말한 기독교 신앙의 생활은 개인적인 것이나 격리된 고독의 어떤 삶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순수한 공동체 안에서 그 성취와 완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단독적 존재가 아니고 공동체적 존재로 지음받았다.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다. 거기에는 교제와 협력이 필요하고 서로간의 무관심이나 증오, 동료들로부터의 소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자율적 존재도 거절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자기 소외는 곧 동료 인간들로부터의 자기 소외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새로운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되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적 사랑과 충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는 자신의 각별하고 중요한 할 일이 있다.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의 증인이다. 제자의 말과 행위,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도 혼자서는 완전히 할 수 없다. 각자의 은사와 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오직 협동하는 노력으로 땅에서 신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성취된다.

이와 같이 신자들은 서로 같은 신앙과 상호의지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조직된 교회를 말하면서 신자들의 연합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다(고전 12:1~22). 바울이 강조한 연합은 각자의 은사가 다 “한 성령”으로부터 왔고 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각자는 특수 임무를 담당하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시작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은 저희가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키는 노력이다. 여기에는 오래토록 기독교 사상과 실체를 오염시켰던 종교 귀족계급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다. 목사의 직이 가정부의 직보다 높을 수가 없고 학자의 직이 농부의 직위보다 높은 것이 아니다. 일정한 때와 곳에서 어떤 직이 공동체의 건전성을 위해서 다른 직보다 좀 더 본질적일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는 우월이나 열등의 직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직은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듯이 신적 소명(a divine calling)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교육은 기독교 공동체의 계획된 사업(a project of the Christian Community)으로 보아야 한다. 거기에는 기독교의 젊은 이들을 그 공동체의 성숙한 회원이 되도록 교육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이 땅에서 완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 교육의 각 분야의 목표들은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한 기독교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계획의 한 목적은 공동체 회원들 간에 순전한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바른 기독교 전통과 기독교 사상을 습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것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학생 각자의 특유한 것을 발전시켜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을 과소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 하거나 공동체의 공동의식을 무시하는 개인주의를 떠나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공동체 의식 속에서 일체감을 가진 개개인의 전문화를 통해서 각자가 충성

할 때에 기독교 공동체는 그 완전한 계획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것이다.

4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공동체(The Christian Community in Society)

그러면 기독교 공동체와 사회와의 정당한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로부터 도피하여 우리들만의 구별된 사회를 세울 것인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은 자기 주위의 사회, 그 사업, 그 학문, 그 유흥, 그 선전에서 다각도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도망치며 이 세상 사람들과 그들이 산출하는 문화와의 접촉을 전적으로 회피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신자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피해나올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회 속에서 자기 신앙을 실천해야 한다. 신약성경은 신자의 위대한 임무는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세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개인적 경건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 복음전파와 사회적 책임은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기독교인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배우기도 한다. 신자만이 진, 선, 미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인간들로부터 배운 것을 개선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 말들을 보면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전 5:10)고 하였다. 물론 기독교인은 한편으로는 세상을 멀리 하고 세상과 짝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나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는 말은 정당하고 적절한 말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증거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동시에 신자는 사회의 문화적 소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예배와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하여 그밖에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표준과 그들의 삶의 양태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것이다. 신자의 새로운 삶은 변화의 삶이다. 그것은 더 많

은 어려움과 도전에 봉착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권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사실 기독교 신자와 불신자 간의 차이는 민족이나 언어, 또 풍속의 차이가 아니다. 기독교 교육은 그가 속한 사회와 그것으로부터의 도피를 가르쳐서는 안되고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의 삶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대학의 학생들은 먼저 그 사회를 이해해야 한다. 그 사회의 기원과 성격, 가치와 이상,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알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동료 인간들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자기가 처해있는 사회를 배우고 또 그것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니냐를 알아보는 중요한 조목이다. 기독교 교육의 사명은 세상에 사는 하나님께 속한 신자를 양육하는 것이다. 통원연구

참고도서

- 1) John Calvin, *The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
- 2) Calvin College, *Christian Liberal Art Education*
- 3) Arthur Holmes, *The Idea of a Christian College*
- 4) Theodore Plantinga, *Rationale for a Christian College*
- 5) Robert Webber, *The Secular Saint The Role of the Christian in the Secular World*
- 6)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 7) 이종성, 「종말론 I」